

편집후기

대한신경과학회 20년사는 1999년 10월 28일 대한신경과학회 이사회에서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편찬위원장에 서정규 교수, 그리고 김승민, 김영현, 김주한, 박규현, 전범석, 조기현 회원 등을 편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수 차례의 편찬위원회 회의와 원로그문단 선생님과의 2차례 회의 끝에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없거나 불충분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창립할 당시의 민감한 역사와 개관은 서정규 편찬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역사는 2000년도 당시의 이사들이 작성하였다. 모든 원고는 수 차례의 편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집필상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학회의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십 년이란 세월은 그리 짧지도, 길지도 않아 이번에는 초창기 회원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어렵사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 초창기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원로 선배님과 연락을 취하거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은 뜻 깊은 일이었다.

편찬위원회는 이번 20년사를 쓰면서 우리 대한신경과학회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객관적인 기록을 근거로 정확한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초창기의 기록의 부실, 서류의 분실, 사진자료의 부재 등으로 기록에 좀 더 충실할 수 없었음이 매우 안타깝다. 특히 초창기의 사진자료가 부실하여 원래 계획 하였던 '사진으로 보는 대한신경과학회 20년사' 를 만들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들은 이제까지의 미비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학회와 관련된 기록의 전산화와 체계적인 보존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번의 20년사가 앞으로 계속되어 50년사, 100년사의 토대가 될 것을 확신한다.

20년사를 편찬하면서 대한신경과학회가 20년의 길지 않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모든 선후배 신경과 회원들의 자기 희생을 감수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모든 회원들이 우리 대한신경과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돕고 노력할 때 세계 수준의 학회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끝으로 이번 20년사 발간을 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오랜 시간 기록을 보완해 주신 원로 선배 회원님과 집필위원, 서정규 편찬위원장과 편찬위원들, 학회 사무실의 광영애 실장과 사무원들, 그리고 출간을 맡은 (주)씨아이알 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편찬위원회 간사 김 주 한

대한신경과학회 20년사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편찬위원〉

서정규 김주한 김승민 김영현 박규현 전범석 조기현

〈집필위원〉

서정규 김승민 전범석 정경천 이광호
김주한 홍승봉 이병철 임병훈 이창훈

〈고문단〉

김기환 김명원 김명호 김진수 노재규 명호진 박영춘
박충서 선우일남 이상복 최일생



앞줄 좌측부터 김명호, 이상복, 박충서, 박영춘, 서정규
뒷줄 좌측부터 전범석, 김주한, 정경천, 김영현, 이광호, 김승민

대한신경과학회 20년사

인쇄일 : 2003년 4월 1일

발행일 : 2003년 4월 7일

발행인 : 노재규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Tel. 02-737-6530

Fax. 02-737-6531

인쇄처 : (주)씨아이알

Tel. 02-2275-8603

〈비매품〉